〈韓國建築의 特色에 對하여〉

日本大阪府建築士會會員一同 本協會來訪 懇談會
席上 講演 要旨 (30分)

理事 姜 奉辰

오늘 우리 협회를 찾아 주신 여러분은 우리와 다같은 건축사로서 한국을 관광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오셨고 특히 경주, 부산, 대구등지에 산재하고 있는 신라문화의 고적을 순례하셨다. 하므로 이자리를 빌려 잠시동안 여러분에게 한국 건축의 특색에 대해서 말씀 드리므로써 여러분의 한국관광에 다소라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print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한국건축발달의 연대적 구분을 말씀드리면 한국의 기원은 태고에 단군이 백두산에 강림하여 개국한 이래 4303년이란 장구한 역사를 갖이고 있읍니다. 이시대의 건축은 분명치는 않으나 문화사적인 면에서 볼 때 동굴주거나 토막집 정도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후 인지의 발달에 따라 건축도 점점 발달되었는데 그 상황은 print를 잠간 봐 주시길 바랍니다.

1. 韓國建築厂史의 年代的 區分

太古 檀君(4303년)……B. C2333

上代 { 樂浪郡……B. C108~A. D313
帶方郡……後漢末~A. D313
三 韓(馬韓, 辰韓, 卞韓)

三國時代(発生時代) { 高句麗…B. C37~A. D668
百 濟…B. C18~A. D663
古新羅…B. C57~A. D653
(伽耶)…後漢初~A. D562

新羅統一時代(極盛時代)……A. D654~A. D935
高麗時代(餘盛時代)……A. D918~A. D1392
李朝時代(衰退時代)……A. D1392~A. D1910

prin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낙랑, 대방의 문화는 당시 고도로 발달된 중국의 "한"나라 문화가 우리 북방 땅에 처음 들어왔던 것으로서 당시의 건축은 우리의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건축에 속할 성질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한국의 남방에는 마한, 진한, 변한의 3한이 있어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한국문화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 시대의 건축은 문헌에 의하면 벌써 가구식주거로서 온돌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후 고구려, 백제, 고신라의 삼국시대는 한국건축의 발생시대로서 고구려의 고분내에는 당시의 목조건축(가구식)이나 풍속, 인물등을 그린 벽화가 있는데 그 색체가 1,300여년을 지난 오늘날 까지 선명하게 남아있읍니다. 신라 통일시대는 한국건축의 비약적 발전시대이며 오늘날까지 전해 온 당시의 훌륭한 석조건물이 많이 남아있읍니다.

고려시대는 건축은 물론 미술 공예품이 상당히 발달한 시대로서 고려청자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예술품입니다.

이조시대는 초기에는 상당히 활발하였으나 말기에 국운이 쇠퇴함에 따라 건축도 점점 쇠퇴 하였읍니다.

다음에는 신라 이후 각시대별 건축의 특색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내용은 프린트에 요약 기재하였으므로 Print 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2. 各時代의 建築特色

新羅時代
- 初期…新羅固有藝術時代
- 中期…新羅固有藝術에 中國의 六朝藝術을 加味한 時代
- 末期…中期藝術에 唐의藝術을 加味한 時代

高麗時代
- 初期…新羅藝術을 繼承하고 高麗固有의 藝術을 加味한 時代
- 末期…初期藝術에元의影響을 加味한 時代

李朝時代
- 初期…高麗藝術에 李朝固有藝術(儒敎藝術)加味한時代로서 堅実한 建築様式이다.
- 中期…文藝復興時代로서 華麗한 建築様式이다.
- 末期…衰退時代로서 複雜하고 織弱한 建築様式이다.

각시대의 한국 건축의 특색은 Print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나 대체적인 윤택은 중국양식에 비슷 하지만 세부적인 수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한국 고유한 양식을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백제시대에는 박사 왕인(王仁)이 일본에 경문을 전하였고 백제공장 아비지(阿非知)가 공장 200여명을 인솔하여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나라 법륭사(法隆寺金堂) 금당을 건축 했다고 하며 법륭사의 다마무시즈시(玉蟲厨子)는 백제건축양식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문헌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읍니다.

다음엔 한국 건축의 현존 유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Print에 나와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을 하나, 둘 적은 것에 불과하며 이외에 3국시대부터 이조시대까지의 한국 건축의 유물은 전국 각처에 대단히 많이 남아 있읍니다.

3. 現存遺構

三國時代
- 高句麗…古墳壁画
- 百 濟…扶餘塔, 古墳, 其他
- 古新羅…瞻星臺(東洋最古 天文臺)
  芬皇寺塔 其他

新羅統一時代…佛國寺石窟庵, 外 多數

高麗時代…榮州浮石寺無量壽殿(1377)
〃 〃 祖師堂(1377)
外 6棟이 現存 (13世紀…2棟 / 14世紀…6棟)

李朝時代…城廓, 宮闕, 文廟, 關王廟, 書院, 客舍, 佛寺, 塔婆, 浮屠, 石碑, 王陵其他 多數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서 석조원형건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줄어들게 하여 안정감을 나타내고 정상부에 十字型의 정형(井桁)을 놓고 방위를 측정 하였던 것입니다.

석굴암은 중국 운강의 대동석굴이나 인도의 아잔타석굴 등이 자연 암석에 굴을 파서 만든것에 반하여 경주 석굴암은 순전히 인공적으로 굴을 축조하고 중앙에 본존불을 안치하고 주위의 둥근 벽

면에는 11면 관세음보살상을 비롯하여 여러 보살상을 정밀하게 조각하여 그 정교함은 세계에 자랑할만한 훌륭한 예술품입니다.

고려시대의 현존 건물은 Print에 적어 있는 바와 같이 8동이 남아있고 내부의 벽화나 외부의 단청도 아즉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며 그 수법양식은 완전히 한국 고유한 것입니다.

이조시대의 건축은 그 종류가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고 현존한 건축물의 수(數)도 다른시대 것보다 월등하게 많이 남아 있으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개 임진왜란 이후의 것이 많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의 건축이 대부분 불교 건축인데 반하여 이조시대의 건축은 유교 건축이 많습니다. 이것은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고 이조는 유교를 국교로 삼았던 관계 때문이었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축 양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한국 건축의 외관은 중국과 일본과의 중간적인 양식을 갖었다고 생각 됩니다. 즉 중국 건축은 용마루나 처마곡선이 하늘로 치솟은 듯한 급곡선으로 되고 일본은 대개 직선으로 된데 반하여 한국 건축은 급곡선과 직선의 중간쯤 되는 아주 완만한 곡선으로 된 것입니다.

한국 건축의 양식상 특징을 Print에 의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흑판에 그림을 그려 가면서 설명했음)

4. 韓國建築樣式의 特徵

〔Ⅰ〕柱心包樣式
(疎組, 亞麻組)
(宋에서傳來)

1. 垂直檐遮式…檐遮垂直曲面굽, (斗捺)、굽바침(皿斗)無(和樣) 下端反節曲線
(肘木)
2. 斜切檐遮式…檐遮斜切曲面굽, 굽받침有 (大師樣, 天竺樣)
3. 円孤檐遮式…檐遮円孤又는反節曲線, 平面굽 굽받침無(禪宗樣)
4. 変則式…柱頭에만굽받침有, 小累(小斗)에는 굽받침無, 平面굽.

〔Ⅱ〕多包系樣式
(註 組)
(禪宗樣)
(元에서傳來)

1. 平面굽, 굽받침無, 円孤檐遮(和樣)
2. 민흘림(下張)기둥, 又는 円筒柱
3. 平防(臺輪)上에 貢包(斗組) 配置
4. 우물天井(格天井)

〔Ⅲ〕折衷樣式

1. 建物各部에 柱心包, 多包 樣式을 混用한것
2. 架構는 多包系 樣式으로 되고 柱心包를짠것
3. 桁間과樑間을 2形式으로 짠것

(桁間…多包, 樑間 …柱心包)

5. 柱心包系樣式과 多包系樣式과의 差異点

〔Ⅰ〕柱心包

1. 貢包…柱頭上에 配置
2. 出目數…2出目(2先手) 以下
3. 樑斷面위가 넓고 아래가 좁고 네모를 접은것 偏平
4. 退樑…虹樣式
5. 天井…연등천장 (化粧天井)

〔Ⅱ〕多 包

1. 貢包…平防上에 配置
2. 出目數…2出目以上
3. 樑斷面…위는 직각, 아래는 모를접음
4. 退樑…直梁
5. 天井…우물天井(格天井)

이상으로 한국 건축의 특색에 대하여 간단 하게 말씀 드렸읍니다.

나머지 일정을 유쾌하게 관광 하시고 귀국 하시길 바라오며 귀국 후에라도 계속 양국간의 건축문화 교류에 협조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